

# 화학산업 수출 채산성 “악화”

산자부, 원자재 가격상승 반영못해 ... 석유정제제품은 호황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상반기 국내 화학산업의 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업종별 단체를 통해 2004년 상반기 수출채산성을 조사한 결과, 화학제품과 섬유산업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과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 격화로 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화학산업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으로의 전가가 어려워 채산성이 위협을 받았다.

반면, 석유제품은 국제가격 상승과 더불어 저가의 원유를 정제해 고가의 제품으로 재수출함으로써 수출 채산성이 개선된 것을 나타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정보통신, 전자부품 등도 해외수요 확대와 수출가격 상승으로 수출 채산성이 높아졌다.

국내산업의 이자보상배율(2003) (단위: 배)

구 분	전 체	수 출	내 수
섬유/의복	2.5	1.6	4.2
종이/목재	1.7	2.0	1.6
화학/의약품	3.4	3.4	3.4
철강/금속	6.6	9.7	6.5
기 계	4.7	23.5	3.8
전기/전자 (삼성전자 제외)	8.7 -	9.2 (0.9)	3.2 -
운수장비	7.5	7.9	6.5
운송/서비스	4.2	1.2	5.5
전 체 (삼성전자 제외)	4.7 -	4.9 (2.8)	4.5 -

한편, 화학제품 및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화학산업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차감전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KDI에 따르면, 2003년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내수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화학·의약품업종에서는 수출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3.4배, 내수기업이 3.4배로 같게 조사됐다.

섬유 및 의복업종의 이자보상배율은 수출기업 1.6배, 내수기업이 4.2배로 수출 채산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13>